

다문화청소년들의 스트레스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태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

Relationships Among Stress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Attitude, of Adolescents with Multi Cultural Family Background

이덕희
신라대학교

Deok-Hee Lee(hee3477@naver.com)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학업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인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요인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 간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간에 차이를 검증하였다. 학년과 가족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거주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는 인간관계와 수업참여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안녕감에는 음(-)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안녕감 모두 스트레스와 학업태도 간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 중심어 : | 다문화청소년 | 스트레스 대처 | 사회적 지원 | 심리적 안녕감 | 학업태도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cademic attitude multicultural youth, and cope with stress social support, an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ameters of psychological Hi feeling, and for more efficient guidance Set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that provide the basic data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it and Henin models through systematic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ctors of stress due to the demographic Henin multicultural you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ress corresponding to the average income of the grade and families was observed. However, differences in the stress in accordance with the residence period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tress for participation in relationships between classes was observed. Second, the stress of multi cultural youth, psychological Hello feeling to cope with stress is sound had the effect of (-). However, social support, stress coping, that there is an effect of the parameters of the positive (+) 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th of psychological Hello feeling of stress and academic attitude.

■ keyword : | Stress Coping Strategy | Social Support | Psychological Well-being | Academic Attitude |

I. 서론

다문화청소년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활동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다문화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태도를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서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각종 부적응 현상들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친구문제, 가족문제, 학교관련 등으로 나타나는데,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한민국의 경우 학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다고 보고한다[1].

한편, 일반학생들과는 다르게 다문화청소년 학생들은 언어에 대한 부담감과 문화에 대한 차이로 인해 일반학생들만큼 공부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진도가 뒤떨어질 수 있으며, 교우들과의 성장을 위한 친밀한 사교시간도 한정되어 있다. 이로써 학업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들은 입시에 따른 스트레스와 사춘기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학생들과 학교생활이나 스트레스가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업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존재해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부모님 또는 교사

의 사회적지지 등에 관한 연구로 나타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로 중학생과 빈곤층 중학생의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진로태도의 성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2].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시대에 들어선 요즘,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학생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일반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학업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인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 학업태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 하였다.

- 연구문제 1.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다문화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으로 인해 학업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

1.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각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만 9세에서 24세의 연령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에 속하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 '다문화학생' 등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의미와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범주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9세에서 24세는 아동과 청소년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을 다문화청소년으로 한정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1990년대부터 국제결혼으로 인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 학생들도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추세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기본통계조사 항목에 다문화 학생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본격적인 다문화 학생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4년 교육통계를 통해 조사된 바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합한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총 67,806명이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학생 수의 1.0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국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전체 학생은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6천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급증 현상은 충분히 예견된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기를 맞는 다문화청소년들은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의 잠재된 불안요소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학습 및 학교 부적응, 사회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다문화청소년은 초등 36% · 중등 51% · 고등 69%가 진학할수록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서툰 한국어 · 교육지원 부족 등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포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교 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면 자녀들은 과제물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수업 진도를 못 따라가거나 심지어 학교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고 털어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학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3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와 설명방식은 시대와 학자들에 따라 그 정의가 변화되고 상이하다. 14세기에는 곤란, 고통, 역경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17세기에는 신체적 긴장이나 압박의 의미로 쓰였다. 20세기 초기에는 의학과 생물학 분야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이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되었다[4]. 즉, 개인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마음이 쓰이고 갈등이나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들에게는 학습능력의 부진, 교사 및 교우와의 불만족한 대인관계, 부적절한 행동과 정서표출, 우울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공부문제, 대인관계, 가정문제, 학교생활문제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1]. 여러 연구결과,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5][6].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학업태도에 부적상관을 보일 것으로 추론하여 청소년 스트레스와 학업태도와의 관계를 점검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2. 스트레스 대처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의 폭을 거치는 과정에 놓여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적응이 요구되며 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스트레스는 건강과 삶의 만족, 학업적인 성공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며 또한 순응성이 없는 대처방식을 야기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우왕

좌왕하며 대처하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불안, 긴장, 좌절, 우울 등에 휩싸여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인식에 따른 편견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재적응이 요구되는 상황 등에 대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중요하며 더 나아가 성인기를 준비하며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사회와 가정에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요구와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사이의 불균형 상태로 특히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기대되는 결과가 다르다면 나타나게 된다. Moos와 Billings[7]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의 교류관계에서 내적, 외적 요구를 조절하고, 개인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견디려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대처방식은 대처의 실패에서 오는 부적인 정서가 상승하게 되어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들로 인하여 자존감을 위협받거나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는 악순환을 겪는다[8]. 따라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개인의 발달 단계,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의 수준, 주변의 활용가능한 자원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반응하며 정서나 대처방식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Folkman과 Lazarus[9]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Folkman과 Lazarus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기초로 김정희[10]가 요인 분석한 4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원

Cohen & Hoberman[11]은 사회적 지원을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관계를 통해서 받는 모든 긍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원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따라 아동기보다 좀 더 확장되고 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족 이외의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등은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이들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게 된다.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동일하게 다른 친구들과 친구관계를 맺음으로써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지며, 그 속에서 사회적 지원을 교환하게 된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친구관계의 범위가 일반 학생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활발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의 친구들은 같은 다문화청소년이 많았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교류의 범위도 작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 및 학교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4. 심리적 안녕감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기본 바탕에는 심리적인 안정이나 평안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심리적 안녕감은 일상생활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적응하는데서 느끼는 정서로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하는 정서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험 없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다문화청소년들은 심리적 혼란이나 심리적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 저조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병리적인 문제들이 유발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리적 동요를 줄이고 심리적 안녕감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현실적 처방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안녕감 제고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에는 심리 상담이나 약물요법, 명상요법,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통한 방법, 종교 활동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에 인지된 자아존중감과 사회참여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5. 학업태도

학업에 대한 태도는 학업 능력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학업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2]. 태도는 ‘어떤 환경 내의 대상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의 강도’를 의미한다.

학업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긍정 또는 부정의 경향이라는 점에서는 태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다만 그 대상이 학습이라는 특수한 사태라는 점에서 태도와 구별된다.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학교나 학습에 대한 태도는 학교생활을 통해서 형성되며, 일반적 경향성을 갖게 되어 학교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학습자의 학교와 학교학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학업태도는 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친구, 학교수업, 교과목 등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행동으로 반응하려고하는 복잡적이고 추상적인 심리적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12].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유의적 샘플링을 사용하였는데, 유의적 샘플링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선택에 따른 채취 방법으로 선행연구나 정보가 있을 경우 또는 현장 방문에 의한 시각적 정보, 현장 채수 요원의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채취지점을 선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의적 샘플링 방법은 연구 기간이 짧고, 예산

이 충분하지 않을 때, 과거 측정지점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을 때, 특정지점의 오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선택한다. 따라서 부산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0명의 학생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14년도 기준, 2,770명으로 그 중 초등학생이 2,039명, 중학생 470명, 고등학생 261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3], 전체 부산지역의 다문화 중·고등학생 731명 중 6.84%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수가 작기 때문에 50부의 설문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조사 대상자에게는 설문지 기입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조사 방법은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5년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는 그 즉시 다시 보완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5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로서 SPSS WIN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은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업태도 간에 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함을 가정하고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학업태도 간에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연구문제와 스트레스가 학업태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법을 실시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4. 측정 도구

4.1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지는 민하영과 유안진[13]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스트레스 척도의 가장 작은 신뢰도 계수는 $\alpha = .842$ 로 모두 기준치 0.7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항목의 신뢰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공부(6문항), 인간관계(8문항), 수업참여(4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각 문항은 ‘거의 받지 않았다’(1점) ~ ‘매우 많이 받았다’(5점)로 구성하였다. 응답문항의 평균점수가 높다는 것은 학업성취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대처란 개인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다루어 나가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의 대처는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분류되며, 적극적 대처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원추구 대체 요인으로 구성되며, 소극적 대처는 소망적 사고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의 요인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대처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한다.

4.3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심리적·생리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공

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정서적, 물질적, 수단적 지원으로 구성된다.

4.4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로 Ryff[14]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PWBS :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는 자아수용,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상황, 긍정적 대인관계의 6개 차원으로 구성된다.

4.5 학업태도

학업태도란 ‘학습에 대해 나타나는 학습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 경향’이라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고 비교적 지식적인 체제를 지닌 조직체로 학습을 통해 또는 대상에 대한 직·간접을 통하여 형성 및 변화될 수 있는 심리적 상태 즉, 자신의 학습활동에 대한 일반적 사고방식이다.

학업태도에 대한 문항은 홍현숙[15]의 연구에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재수정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학업태도의 변수별 문항 수는 학교적응도 6문항, 수업충실도 6문항, 교사평가 6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6 측정도구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선정되었으나 본 연구에 적합한지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측정 변수에 대해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 학업태도의 요인을 선정하고 정교화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한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스트레스는 .840, 스트레스 대처는 .831, 사회적 지원은 .830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821, 학업태도는 .818로 나타나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IV.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분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남학생이 24%, 여학생이 76%로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중학생이 80%, 고등학생이 20%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역의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형편은 300만원 이하가 76%로 일반적인 평균보다 소득이 적은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한국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항목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2	24%
	여	38	76%
학년	중1	21	42%
	중2	-	-
	중3	19	38%
	고1	10	20%
	고2	-	-
가정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	9	18%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	27	54%
	200만원 이상 300만원미만	11	22%
	300만원 이상 400만원미만	1	2%
	400만원 이상 500만원미만	1	2%
	500만원 이상	1	2%
한국 거주기간	1 ~ 3년	33	66%
	4 ~ 5년	14	28%
	6 ~ 7년	2	4%
	8년 이상	1	2%
합계		50	100%

2. 스트레스 요인 분석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스트레스 요인은 18개 요인 중 수업참여에서 2개 요인이 제거되었으며, 인간관계, 공부, 수업참여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표 2. 스트레스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문항	인간관계	공부	수업참여	Cronbach's α
스트레스17	.845			.842
스트레스16	.835			
스트레스15	.753			
스트레스14	.678			
스트레스12	.602			
스트레스13	.551			
스트레스1		.835		.881
스트레스3		.814		
스트레스2		.811		
스트레스4		.778		
스트레스5		.706		
스트레스6		.680		.903
스트레스12			.839	
스트레스11			.731	
스트레스9			.699	
스트레스7			.657	

3. 인구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3.1 학년에 따른 차이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상 학년에 상관없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고민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변인	제곱합	df	평균제곱	p
인간관계	2.220	2	1.110	.331
공부	4.460	2	2.230	.107
수업참여	2.845	2	1.422	.242

3.2 가족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차이

가족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p < 0.05$). 이는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수입이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표 4. 가족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변인	제공합	df	평균제공	p
인간관계	.202	4	.051	.995
공부	3.127	4	.782	.539
수업참여	6.231	4	1.558	.182

3.3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거주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인간관계와 수업 참여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문화적 융합 때문이라 사료되며, 친구들과 교류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수업에 참여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표 5. 거주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변인	제공합	df	평균제공	p
인간관계	10.952	3	3.651	.011
공부	4.843	3	1.614	.184
수업참여	10.159	3	3.386	.017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세부문항	표준적재값	표준오차	t값	개념신뢰도	AVE
스트레스	인간관계	.716	.384	-	.829	.620
	공부	.851	.256	10.006		
	수업참여	.708	.424	9.271		
스트레스대처	적극적 대처	.698	.325	-	.883	.790
	소극적 대처	.964	.042	8.311		
사회적 지원	정서적 지원	.777	.200	-	.862	.680
	물질적 지원	.695	.419	9.566		
	수단적 지원	.760	.179	1.319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905	.139	-	.928	.760
	자율성	.851	.212	16.088		
	환경에 대한 지배력	.793	.264	14.697		
	삶의 목적	.818	.259	15.44		
	개인적 상황	.924	.076	17.281		
학업태도	긍정적 대인관계	.836	.154	15.115	.946	.850
	학교적응도	.838	.157	-		
	수업충실도	.924	.076	17.281		
	교사평가	.836	.154	15.115		

4. 인과관계 분석

4.1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0.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적합도의 적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RMSEA는 0.05이하, GFI, NFI, CFI는 0.9이상, AGFI는 0.8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179.213$ ($df=160$, $p=0.142$), $\chi^2/df=1.120$, RMSEA=0.023, GFI=0.931, AGFI=0.901, IFI=0.992, NFI=0.932, CFI=0.992로 나타나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은 본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나타낸다. 본 모형에서 표준화된 적재치는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고, 개별 측정변수들의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분산추출값)은 0.5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에 관련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4.2 구조방정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모형의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396.186$ ($df=173$, $p=0.000$), $\chi^2/df=2.290$,

RMSEA=0.076, GFI=0.850, AGFI=0.800, IFI=0.910, NFI=0.850, CFI=0.909을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모형은 공분산 구조분석의 일반적인 평가지표들과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기에 모형은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구조방정식 결과

경로	경로계수	S.E	t값	P
스트레스 → 사회적 지원	-.033	.059	-4.85	.627
스트레스 → 스트레스 대처	-.154	.056	-2.462	.014*
스트레스 → 심리적 안녕감	-.196	.258	-2.103	.035*
사회적 지원 → 학업태도	.297	.084	4.395	.000***
스트레스 대처 → 학업태도	.216	.061	3.402	.000***
심리적 안녕감 → 학업태도	.427	.071	5.485	.000***

***=p<.001, **=p<.01, *=p<.05

5. 연구문제의 검증 및 결과의 해석

5.1 연구문제 1의 검증

연구문제 1은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선행연구의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3가지로 나뉘어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부와 인간관계, 수업참여로 결정하였다.

5.2 연구문제 2의 검증

연구문제 2는 ‘다문화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상 학년에 상관없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고민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선행연구[16]의 경우 학년 간의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사이 등 나이 차이가 어느정도 존재하는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며, 이들의 학년은 비슷하므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선행연구의 경우 대상이 국내 학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선행연구[17]에서 가족의 수입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나타나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수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다문화 가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더욱 유용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간관계와 수업참여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문화적 융합 때문이라 사료되며, 친구들과 교류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수업에 참여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연구문제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5.3 연구문제 3의 검증

연구문제 3은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으로 인해 학업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에 -.154만큼의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 안녕감에는 -.196만큼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안녕감 모두 스트레스와 학업태도 간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업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인 간의 관계 검증에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 간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 및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 검증 결과이다. 대부분의 지수가 수용 기준을 넘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모델의 적합도는 우수하여 수집된 자료들이 연구 모델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도구의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뢰도와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높은 관찰변인을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집중타당도는 표준요인 적재량이 전반적으로 .70이상의 적재치를 나타내 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신뢰도는 모든 잠재변인 내에서 내적일치도의 개념 신뢰도 0.7이상, 평균 분산추출지수 0.5이상의 값들이 산출되어 전반적인 신뢰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태도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서 구조방정식을 적용한 유사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적재량이 높은 문항들을 추출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잠재변인의 관찰변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델은 적합 타당도 검증과 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이 검증되어 수정 모델 없이 최종 모델로 수용됨에 따라 변인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간에 차이를 검증하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상 학년에 상관없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수입이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간관계와 수업참여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문화적 융합 때문이라 사료되며, 친구들과 교류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수업에 참여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안녕감에는 음(-)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안녕감 모두 스트레스와 학업태도 간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다양한 지원 효과의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 등을 통한 심리적 안녕감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학업을 그만두는 다문화 청소년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위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야할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부산지역에 한정하였는데, 다양한 지역을 토대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만으로 연구 변수의 범위를 한정하였는데, 추가적인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을 변인 간의 관계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1] 원호택, 이민규,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 pp.22-32, 1987.

[2] 류진열, 빈곤층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관한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남, 2010.

[3] 통계청, 통계로 본 부산교육, 2014.

[4] 김경은, 최은희,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제4호, pp.641-653, 2010.

[5] 김승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 관련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1998.

[6] 배진화, 고등학생들의 학교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02.

[7] Andrew G. Billings and H. Moos Rudolf,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6, No.4, p.877, 1984.

[8] 양국선, 중퇴경험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연구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01.

[9] Richard S. C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p.72, 1984.

[10] 김정희,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1987.

[11] S. Cohen and H.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pp.99-125, 1983.

[12] 한국교육개발원, KEDI 종합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4.

[13] 민하영, 유안진,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9호, pp.1-12, 1998.

[14] Carol D. Ryff and Corey Lee M.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No.4, p.719, 1995.

[15] 홍현숙,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남,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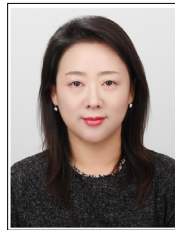
[16] 김상운, 신재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195-202, 2014.

[17] 양심영, 이지영, 이주연,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810-822, 2012.

저 자 소 개

이 덕 희(Deok-Hee Lee)

정희원



- 2008년 8월 :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4년 2월 :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3년 3월 ~ 2015년 12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2016년 3월 : 동부산대학교 사회복지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복지(다문화), 지역복지, 교정복지